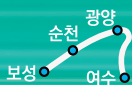


남도에서 나만의 풍경을 찾다

남도바닷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행정구역이 아닌 테마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둘만의 로맨스를 위해서, 휴식과
쉼이 필요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찾으려고 긴 여정을 계획하고, 목적에 꼭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비행기나 배에
올라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이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몰랐던 멋진 곳이 내 주위에 있다면 굳이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멋진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기에 미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의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
보고 그 가치를 재 조명해 보고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0개 권역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개선하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고품격 여행코스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고품격 여행코스를 알리는 여행책자이자 가이드북입니다.



blog.naver.com/ktourbes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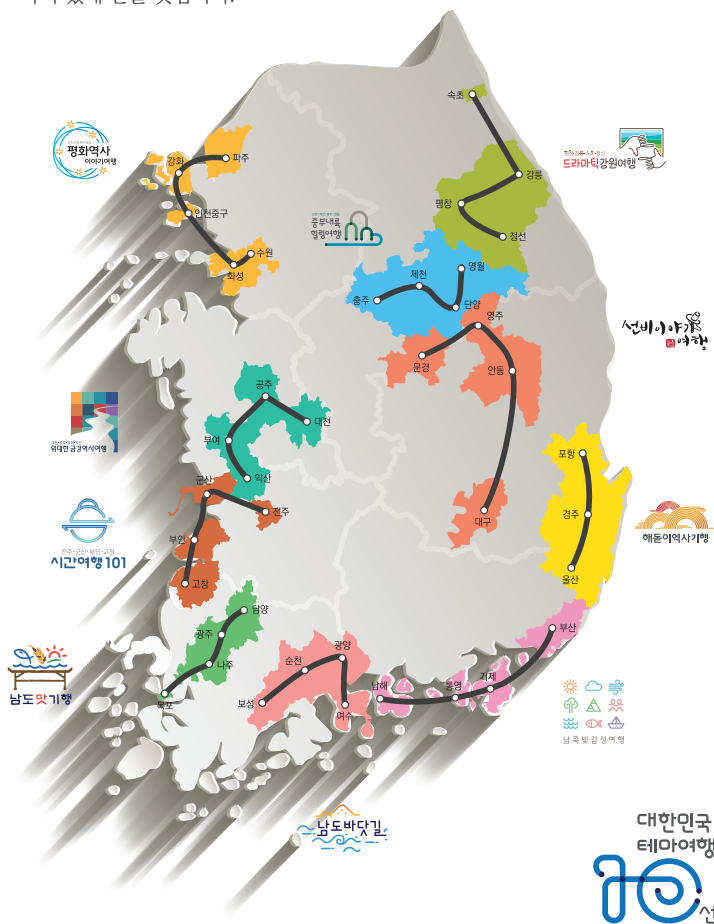


[instagram.com/ktourbest10](https://www.instagram.com/ktourbest10)



ktourbest10.visitkorea.or.kr

대한민국의 전국을 아우르는 총 39개의 도시, 10개의 색다른 테마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곳, 꼭 들려야 할 곳을 혹시나 놓치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숨겨진 명소까지 남김없이 담았으며, 여행하는 동안 여행객 모두가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의 초대

04. 테마여행 10선 사업 소개

그곳의 분위기

10. 권역 테마 소개

그곳의 이야기

12. 광양

18. 여수

24. 순천

32. 보성

그곳의 기억

14-17. 광양

20-23. 여수

26-29. 순천

34-39. 보성

41. 보조코스

그곳의 재미

42. 축제

44. 쇼핑(음식, 특산물)

그곳에 머무르기

46. 숙박

48. 교통

남도의 정취에 취하고 바닷길의 감성에 젖는다



여수 돌산대교



남도바닷길 여행은 빼어난 연안바다의 풍광과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남도의 풍류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낭만 넘치는 여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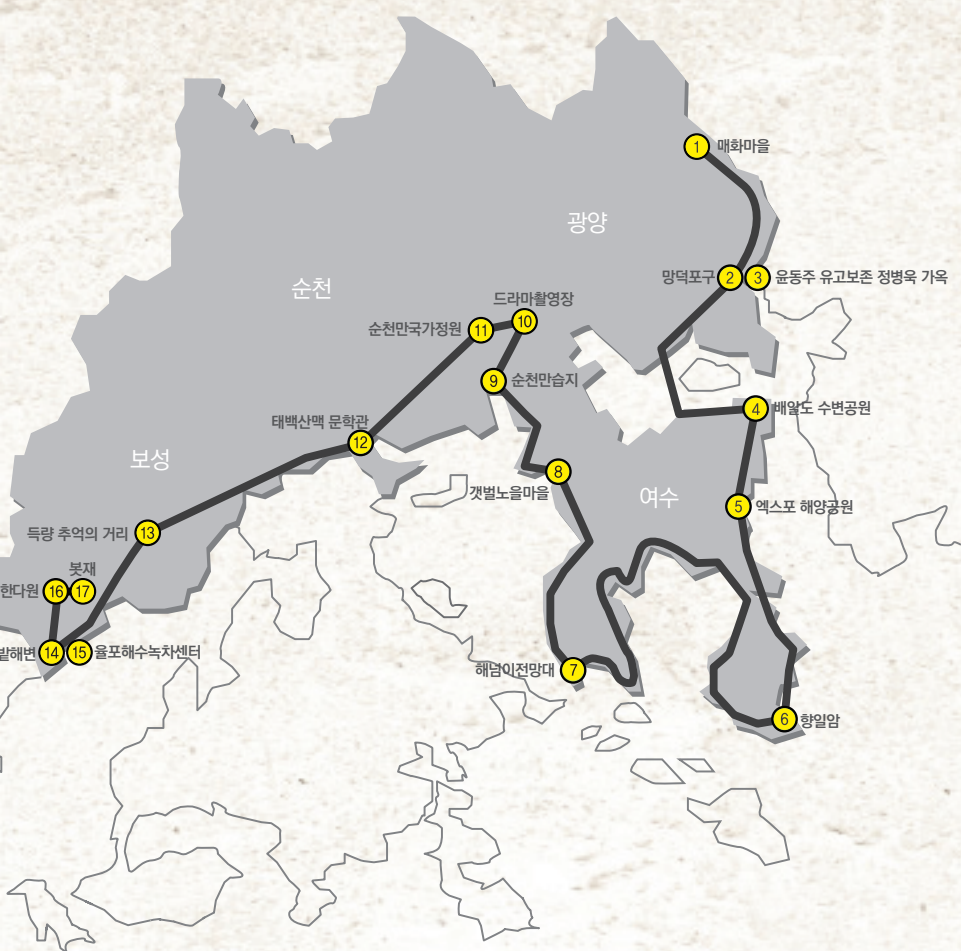
바닷길을 걷다 보면 바다와 육지, 하늘이 만나는 곳으로

산길도 있고 들길도 있고 도시의 길도 있지만 많은 길들 중에서도 바닷길을 걷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칫 외로울 수 있는 길의 여정에서 파도는 음악이 되고 갈매기는 친구가 되며 매 순간 변하는 바다의 표정은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 바닷길을 걷는 것은 외로움보다는 낭만에 더욱 가까운 일입니다.

바닷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은,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차고 넘친다.

남도바닷길 권역은 광양, 여수, 순천, 보성 4개 지역의 해안길과 섬, 일출, 석양, 갈대, 생태습지, 바다동식물, 갯벌, 인공정원, 녹차밭 등의 아름다움과 빼어난 바다의 풍광, 휴식을 모두 충족시키는 코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도의 바닷길을 걷다 보면 한국문학의 거목, 조정래 작가의 문학관이 위치한 보성 벌교읍에 닿게 됩니다. 이곳에는 소설 태백산맥의 주요 무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문학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감성의 촉매제가 되어줍니다. 광양의 정병옥 가옥은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생전에 쓴 원고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시적 감성이 한껏 살아나는 곳입니다. 바닷길을 지나다 만나는 순천의 와온마을과 여수의 공정마을에서는 가히 인생 노을이라



볼릴 수 있을 만한 멋진 노을을 만날 수 있고 이순신 대교와 울포 해변에서는 남도의 넓고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남도 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매력을 만나러 지금 남도바닷길로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을 어떨까요?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고 봄의 향기를 처음 만난다

대한민국 내륙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광양의 백운산과 섬진강 주변으로 흐드러진 매화가 봄의 시작을 알려오면 다압면 도사리에 위치한 매화마을에는 앞다투어 매화가 피어나 탄성을 불러일으킬 만큼 신비로운 절경을 이룹니다. 광양은 추운 겨울을 지나 전국에서 매화가 가장 먼저 피어나는 곳으로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10만 그루가 넘는 매화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 3월 한 달 동안 매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으로 매화마을은 축제의 장이 됩니다. 초여름의 매화마을 매실농원은 매실 수확을 위해 또 한 번 분주해집니다. 매화철이 지나도 맥문동, 구절초 등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야생화가 피어나 꽃 천지를 이루는 광양은 봄부터 가을까지 마을 전체가 거대한 화원입니다.

광양은 대한민국 5대 강 중 가장 맑고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섬진강과 바다가 맞닿는 곳에 있어 강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모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왜적의 침입을 망했다고 해서 망덕이라 이름 붙여진 망덕 포구는 총 길이 200km에 이르는 섬진강이 남해바다와 만나는 곳으로 산책로가 나무 데크로 잘 정돈되어 있어 빼어난 자연 환경을 즐기 위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생전에 쓴 원고와 그대로 보존된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은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광양에는 식도락을 자극하는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은어와 재첩, 가을 전어 등이 광양의 대표적인 먹거리이며 광양불고기 또한 광양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꽃 향기에 젖어 아름다운 바닷길을 걷다 보면 윤동주의 서시를 만나고, 감성에 흠뻑 젖을 때쯤 밀려드는 출출한 허기를 광양의 먹거리로 채운다면, 이보다 더 오감을 만족시킬 여행이 또 있을까요?





매화마을

백운산 자락 매화마을의 봄소식은 매화가 가장 먼저 전한다. 매화마을의 정식명칭은 홍쌍리 매실마을이다. 1965년 광양으로 시집온 홍쌍리 여사는 돌산을 개간해 매실농원을 만들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설중매의 생명력처럼 거친 돌산 6만 평에 1만 그루의 매화나무가 자라났다. 섬진강과 매화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옥각정과 매화마을 중심에 있는 팔각정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면 전망대가 나온다.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1563-1 ☎ 061-772-9494



망덕포구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다 보니 먹을거리가 풍부해 다양한 수산물이 잡히는 망덕포구는 봄이면 재첩과 은어, 벚꽃이 필 때만 난다는 강굴을 맛볼 수 있다. 가을이면 전어잡이 배가 항구를 분주히 오간다. 육질이 탱탱하고 기름기가 풍부해 고소한 맛이 일품인 전어가 많이 잡혀 광주 전어잡이 축제도 열린다. 망덕포구의 배경인 망덕산은 백운산과 이어진 명산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군량미를 쌓아두어 미적도(米積島), 나비가 춤추는 듯 하다 해서 무접도(舞蝶島)라고 불렀다.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82 ☎ 1577-2012



운동주 유고보존 정병옥 가옥

운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세상에 알린 정병옥과 유고를 보존했던 가옥이다. 양조장과 가옥이 더해진 건축물로 2007년 근대건축물로 지정되었다. 정병옥과 운동주는 연희전문학교에서 만나 문학적 교류를 활발히 했고 운동주는 필사한 시집 세권 중 한 권을 정병옥에게 주었다. 정병옥이 고향집에 맡긴 운동주의 원고는 일제의 공출을 피해 마루 밑에 묻혔다. 해방 후 1948년 유고시집은 세상에 나왔다. 정병옥 가옥에는 운동주의 필체가 담긴 원고의 복사본도 전시되어 있다.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249

배알도 수변공원

배알도는 망덕산을 향해 엮여있고 있어 어른을 만난다는 뜻의 배알로 바뀌었다. 수변공원은 수심이 깊어 해수욕장으로 이용되지 않는 대신 섬진강 자전거 도로의 종점이라 이당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깨끗하게 정리된 캠핑시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캠핑을 좋아하는 여행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곳이다. 섬진강의 고운 모래가 이어져 모래놀이나 탁족을 할 수 있고 배알도까지 구름다리가 놓여 있어 바닷바람과 강바람을 맞으며 걷는 즐거움도 있다.

전라남도 광양시 명당길 160-16 ☎ 061-797-2512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의 길로 들어선다

_ 쇼펜하우어



배알도 수변공원

밤바다엔 아름다운
얘기가 있고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다



여수를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끌어 다 놓은 것은 노래 한 곡의 역할이 컸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이 부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는 발표 직후부터 대한민국
의 대표적인 여름 노래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감성과 낭만을 자극하고 있
습니다. 아직 여수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수 밤바다〉의 가사는 “여수 밤바다
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호기심을 깊이 자극하며 수많은 연인들이 여행 장소로 여
수와 여수의 밤바다를 찾게 합니다.

수변공원으로 조성된 엑스포 해양공원에서는 바닷가를 거닐며 다양한 해양 레포
츠를 즐길 수 있으며 국제적인 회의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여수의 자랑으로 떠오르
는 곳입니다. 향일암은 양양의 낙산사, 남해의 보리암, 강화 보문사와 더불어 우리나
라 4대 해수관음도량으로 꼽히고 있으며 매년 향일암 일출제가 열리는 12월 31일
에서 1월 1일에는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갯별노을마을은
앞쪽으로는 여자만이, 뒤로는 호암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을 동시
에 품은 마을은 해 질 녘이면 시시각각 바뀌는 노을빛이 갯별에 신비로운 색깔을 덧
입혀 보는 순간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여자만 지역 최남단에 위치한 해님이
전망대는 일몰이 멋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수의 돌산 공원과 자산공원을 잇는 해
상 케이블카를 타면 발 아래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수의 도심과 해변이 흡사 유럽의
한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밤바다를 보며 추억에 젖은 가수는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는 전 국민의 감성을 자
극합니다. 여수를 여행하기 위해 꼭 지참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음악일지도 모릅니
다. 음악과 함께 추억이 반짝이는 여수 밤바다를 걷다 보면 여수는 가수가 느낀 것
이상의 낭만 가득한 감성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엑스포 해양공원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박람회에 사용된 전시와 건축물은 여행객에게 체험 및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엑스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이 67m의 스카이다워는 버려진 시멘트 저장고를 공간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외벽의 파이프오르간은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음색을 전해준다. 아쿠아 플라넛에서는 벨루가를 포함한 해양 생물 3만 3천여 마리를 만날 수 있다. 디지털 갤러리나 테디베어 뮤지엄과 아트갤러리 같은 실내전시가 많아 날씨에 상관없이 관람하기 좋다. 야간의 화려한 레이저쇼와 다양한 해양스포츠도 빼놓을 수 없다. 레이저쇼 상영 시간은 홈페이지에서(www.expo2012.kr)를 참고하자.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1 ☎ 157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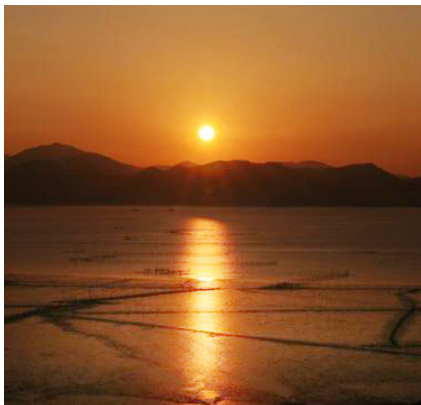




향일암

거북이가 불경을 등에 지고 바다를 향해 나간다고 하여 향일암으로 부르게 된 이곳은 관세음보살이 두루 살피는 관음성지다. 극락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 일주문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바위틈을 지나야 한다. 7개의 바위문을 모두 통과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관음전 아래, 후박과 동백나무 연리지와 원효대사가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바위도 있다.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마치 거북이 등에 탄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 남해안 일출 명소로 알려져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해넘이전망대

남해안 여수의 일몰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다 위에 점점이 자리한 섬들 덕분이다. 섬은 붉은 바다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워 몸집을 키운다. 하과도와 상과도, 낭도를 넘어 백야도까지 점점 색이 벌어지는 섬들은 숨바꼭질 하듯 고개를 빼꼼이 내민다. 한려수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일몰이다. 적금도의 언덕 위에 자리한 해넘이 전망대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쉽게 도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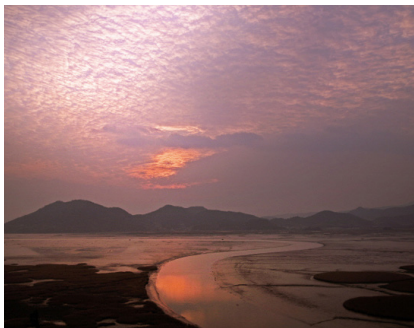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갯벌노을마을

여자만의 석양은 장중한 매력이 있다. 주름진 갯벌 사이에 갇힌 바닷물에는 햇빛이 가득하다. 해안의 물웅덩이에는 데칼코마니처럼 일몰이 고스란히 담긴다. 섬들 사이로 지는 해를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해가 지기 전, 꼬막이나 바지락을 잡는 갯벌체험도 즐길 수 있다.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10월에는 노을 축제가 열린다.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198-7

☎ 061-691-8777





내 길을 비춰주고 삶을
유쾌하게 직면하게끔
새로운 용기를 줬던
이상은 친절, 아름다움,
진실이였다
인간의 노력, 소유,
외적인 성공, 사치 같은
진부한 요소들은
언제나 경멸스러웠다

_ 아인슈타인

갈대숲을 벗어나며 람사르 습지를 걸어 본 적이 있는가?

순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순천만 습지입니다. 순천만 습지는 길이 5.4km의 갈대밭과 22.6km의 갯벌이 마치 바다처럼 넓게 펼쳐져 있어 철새와 갯벌 생물들이 살기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춘 곳입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검은머리 물떼새 등의 철새가 순천만을 찾아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희귀 조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갈대는 순천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도 갈대가 자라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순천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갈대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펼쳐진 갈대가 바람에 움직이는 모습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루며, 영화 속의 클라이맥스 장면처럼 한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을 기억이 됩니다.

순천만에 위치한 국가정원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순천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시 도심과 연안습지 사이에 조성되었습니다. 툇립, 철쭉, 유채꽃 등이 대단지로 조성되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순천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드라마 촬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건축물로 구성된 테마파크로 서울 변두리와 달동네, 순천 읍내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아,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곳은 드라마 〈사랑과 야망〉, 〈에덴의 동쪽〉, 〈제빵왕 김탁구〉 등이 촬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순천은 여러 길 중에서도 특히 바닷길을 걷기에 단연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거대한 갈대숲을 벗어나며, 갈대의 노래를 듣고, 아름다운 람사르 습지를 걸어 보는 것만으로도 순천은 당신에게 최고의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순천만습지



순천만습지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순천만은 80만평의 갈대밭과 갯벌이 좋아 흑두루미와 노랑부리저 어새 등 230여 종의 철새가 찾아오는 철새보호구역이다. 안개 끼는 풍경이 아름다워 김승옥 작가의 소설 〈무진기행〉의 배경이 되었다. 무진교를 지나 갈대밭 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용이 승천하려다 순천만의 아름다움에 얽드려 앉았다는 용산전망대에서 일몰을 보자. 하루 여행을 마감하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 철새도래지로도 유명한 순천만 습지는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에 꼽힐 만큼 드문 환경으로 2006년 랍사르 협약에 등록되었다. '생태계의 콩팥'이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정화능력이 뛰어난 갈대와 칠면초, 통통마디가 갯벌을 채운다.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 061-749-6052

드라마촬영장

군부대가 이전한 뒤 1만2천여 평의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섰다. 건물 185채의 대규모 촬영장으로 1950년대 서울의 청계천 변과 1960년대의 순천읍, 1970년대 서울 봉천동의 달동네를 재현해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되었다. 추억의 음악실에는 신나는 음악과 조명이 일명 '고고장'을 연상케 한다.

전라남도 순천시 비례골길 24 ☎ 061-749-4003







순천만 국가정원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순천만 국가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선정되었다. 국가정원은 동문 정원과 서문 정원으로 나뉘는데, 동문을 들어서면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조경 설계사인 찰스 젡스(Charles Jencks)가 디자인한 순천호수공원이 보인다. 서문 정원의 궁궐정원은 경복궁 교태전 뒤뜰과 창덕궁 후원을 재구성했다. 우리나라의 소박한 별서정원인 소쇄원 광풍각과 세심정처럼 지형을 이용해 만든 군자의 정원도 눈에 띈다. 동문정원과 서문정원을 이어주는 꿈의 다리는 16개국 14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그린 타일을 붙여 만들었다. 무인궐도 열차인 스카이큐브를 타면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쉽고 편하게 오갈 수 있다.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47 ☎ 1577-2013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한결같이 쫓 곧게 나가는 것이며, 그것을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 헤르만 헤세



광양 매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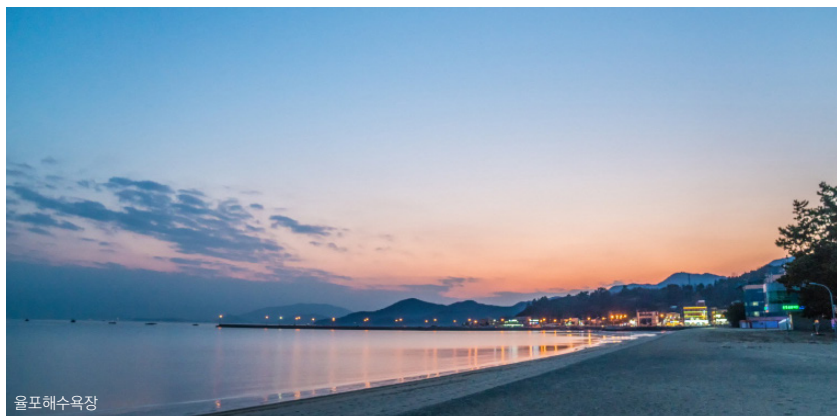
녹차를 만난 바다, 향기에 취해 그 길을 걷다

보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녹차 밭입니다. 싱그러운 녹차 밭을 보고 있으면 눈이 상쾌해지고 녹색의 카펫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화성산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다원에 펼쳐진 채로 일렁이는 50여 만평의 초록 물결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녹차 밭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차 밭의 이랑과 병풍 같은 삼나무의 조화가 그림 처럼 펼쳐집니다. 날이 좋으면 전망대에서 차 밭 뒤로 펼쳐진 남해의 멋진 풍경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성은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로도 유명합니다. 태백산맥 문학관에는 작가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의 취재 과정부터 집필, 완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1만 6천여 매 분량의 육필 원고를 보게 되면 누구나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울포해변은 은빛 모래밭과 함께 숲을 이룬 100년생 소나무들의 초록빛 대비가 조화롭습니다. 공해 없는 청정해역인 득량만 바다를 끼고 있어 걷기 좋은 천혜의 깨끗한 바닷길입니다. 울포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해수녹차센터에서는 보성의 자랑인 녹차와 보성 앞바다의 해수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어 여행에서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득량역에는 7080 분위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가 조성되어 이발소, 역전다방, 오래된 방앗간, 오락실, 만화방이 예전의 형태 그대로 남아 있어 옛 정취에 젖고 싶은 분이라면 방문해 볼만합니다. <알쓸신잡>이라는 TV프로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던 보성여관은 소설 태백산맥에서 남도여관으로 등장한 곳으로, 1935년에 건립된 일본식 2층 목조건축입니다. 이 지역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곳으로 역사 및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에 등록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숙박이 가능하다고 하니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여행객이라면 이곳에서 하루쯤 머무는 것도 좋습니다.

육지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것만 같은 거대한 녹차밭을 걷다 보면 어느덧 드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 그곳이 바로 보성입니다.



울포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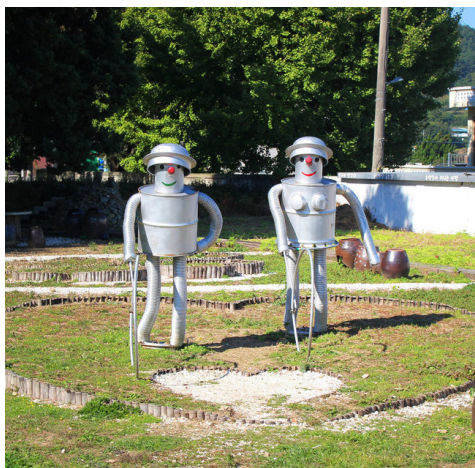
태백산맥 문학관

여순사건부터 한국전쟁까지 역사적 진상을 품은 소설 <태백산맥>을 기념한 문학관이다. 전시는 6마당으로 구분된다. 첫째 마당은 작가 조정래의 집필 동기에 대한 이야기와 소설 태백산맥의 탄생과정을 설명한다. 둘째 마당은 1만 6500명의 육필원고와 소설의 무대인 벌교에 대한 이야기다. 셋째 마당은 이적성 시비에 관한 이야기와 분단문학으로서의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넷째 마당은 작가 조정래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그의 문학세계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다섯째 마당은 도서를 읽어볼 수 있는 곳이며 여섯 번째 마당은 작가의 집필 공간을 재현해 놓았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19

☎ 061-850-8653





득량 추억의 거리

득량마을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무기와 병선을 만들고 군량미를 조달했던 곳이다. 득량역은 1930년 문을 열어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보성의 간이역에는 손으로 쓴 운임표와 개표기가 놓여있고 모자와 유니폼이 있어 역장이 되어볼 수 있다. 역 앞의 70~80년대 추억을 소환하는 거리에는 실제 영업 중인 이발소와 다방, 만화방과 상회, 오락실, 로울러장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28

☎ 061-853-7136

울포 솔밭해변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해 고운 모래해변과 파도가 고요한 울포 솔밭해변은 아이들과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고 썰물 때는 갯벌체험도 가능하다. 빛나는 모래 위에 하얀 선물상자 큐브와 바다로 향하는 어선은 지루할 뻔했던 해변을 생기 넘치게 바꾼다. 바닷바람은 해변을 감싸는 곰솔의 향과 뒤섞인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솔밭 낭만거리에서는 보성 녹차밭과 함께 불빛축제가 열린다.

전라남도 보성군 화천면 우암길 24 ☎ 061-852-5212





울포 해수녹차센터

지하 120m 청정 심해수에 보성 녹차를 우려낸 해수녹차탕이다. 심해수는 미네랄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돌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녹차는 항균 작용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노천 해수탕에 몸을 담그면 득량만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색다른 일몰을 즐길 수 있다. 야외 수영장에는 슬라이드와 유수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보성군에서 직접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가성비가 좋다.

전라남도 보성군 화천면 우암길 24 ☎ 061-853-4566



대한다원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으로 차 재배에 적합한 보성은 1980년대 보성소리제와 다향제가 열려 차 문화를 알리면서 의향(義鄉), 예향(藝鄉), 다향(茶鄉)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청량한 삼나무 숲길에는 은은한 차향이 우리를 반기고 50만 평의 계단식 녹차밭은 유려한 곡선을 이룬다. 바다전망대에서는 다원의 풍경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차 만들기 체험과 다도체험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녹차 생산의 40%를 책임지는 대한다원은 다양한 차는 물론 녹차 성분을 가미한 다양한 상품을 가공한다.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63-67 ☎ 061-852-4540



봇재

보성의 소리꾼이 봇짐을 메고 넘어 다녔다는 봇재에 서면 연천제 저수지와 보성의 득량만이 발 아래 드리운다. 재를 넘다 쉬어가던 전망대 역할을 하던 다향각이 문화관으로 변신했다. 1층에는 보성의 역사 문화관과 차에 대한 전시를 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2층은 보성의 녹차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50

☎ 061-850-5955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_한비아



빛과 바다 야영코스

여수 엑스포 여수 모도 봉화산전망대 여수 이순신대교 전망대 여수 이순신대교 광양구룡산전망대

← 보성 한국차박물관 순천 조례호수공원



섬진강바다코스

광양 매화마을 광양 돈탁마을 광양 윤동주 유고보존 광양 망덕포구



남도바다 하늘길코스

여수 해상케이블카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여수공항 스카이트어 순천만 국가정원

보성 주월산 활공장 보성 봇재 보성 제암산 에코어드벤처 순천문학관 순천 스카이큐브

광양 망덕포구 광양 경비행기체험 광양 구룡산전망대



남도문화예술체험

보성 태백산맥 문학거리 보성김범우의 집 보성 태백산맥 문학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순천창작예술촌

여수 이순신광장 여수 여성문화회관 여수 예술마루 순천문학관 순천 청춘창고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광양 윤동주 유고보존가옥



남도살이마을체험

보성 선소어촌마을 보성 청암마을 보성 강골마을 장암 어촌마을 순천 가래이마을 순천 거차벌배마을

← 여수 소울어촌마을 여수 돌산갯장터마을 여수 외동어촌마을 순천 와온마을 순천 용출다리기마을 순천 장산마을

바다의 정취에 흠뻑 취해 어울링더울링 놀아보자!



여수 거북선축제

여수 거북선축제

매년 5월, 진남제라는 호국문화제전을 통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 선양과 호국 충절을 기리던 것이 여수거북선축제의 시작으로, 여수 거북선대축제는 한때 전국 10대 향토축제 중의 하나로 꼽히던 진남제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킨 행사다. 축제는 매년 5월 4일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구국의 영남을 구하기 위해 첫 출정을 했던 1592년 5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축

광양 매화축제

“꽃길따라 물길따라 섬진강 매화여행” 새하얀 눈꽃이 가득한 섬진강변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해마다 3월 중순부터 말까지 광양매화축제가 개최된다.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광양만의 독특한 맛과 멋스러움을 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중이다.

시기. 3월 T. 061-797-1987

제 형태는 2007년에 바탕이 되었는데 진남제·생선요리 향토음식 큰잔치·돌산갯길치축제·동백가요제를 통합해 지역적 특성을 가미한 것이 지금의 성공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축제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통제영길놀이, 개막식, 개막 식후행사 및 불꽃놀이, 전라좌수영 해상수군 출정식, 해상불빛퍼레이드, 거북선의 고향 여수! 등이 펼쳐진다.

시기. 5월 T. 061-664-5400



순천 순천만 갈대축제

순천만은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보고이다. 봄에는 철새의 비상을, 여름철에는 짙푸른 갯벌을, 가을에는 칠면초와 갈대를 겨울에는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200여 종의 철새를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관광지이다.

특히 가을에 펼쳐지는 황금빛 갈대 물결과 수많은 철새가 이곳을 찾으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순천만은 가을에 꼭 가 봐야 할 필수 관광지 중의 첫 번째로 손꼽힌다.

시기: 11월 T. 061-749-6081

보성 다향대축제

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보성은 옛부터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녹차를 만들어왔고, 지금도 문덕면 대원사, 별교 징광사지 주변등을 비롯한 군 전역에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다. 또한 득량면 송곡리는 마을 이름이 다전(茶田)으로도 불리우고 있어 옛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녹차는 해양성기후와 대륙성기후가 맞물리고 사질양토에다 강수량이 많아야 하는데, 보성의 차밭은 1939년 무렵에 이같은 조건들을 모두 갖춘 활성산(구 학성산) 자락 일대에 30ha가 조성된 후 그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왔다. 최근 들어 녹차의 효능이 현대인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특효가 입증되고 웰빙 열풍이 더해지면서 녹차의

인기는 한층 올라가고 있으며 2019년도 현재 보성군은 대한민국 녹차수도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오랜 역사와 함께 최대의 차 생산지이며 차산업의 발상지라는 자부심 속에서 지난 1985년 5월 12일 “다향제”라는 이름의 차문화 행사를 활성화 기슁의 다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 차의 풍작을 기원하는 다신제와 찻잎따기, 차만들기, 차아가씨 선발 등의 행사를 실시한 이래 1986년 제2회 다향제를 제12회 군민의날 행사와 병합, 다향제로 명명한 후 2009년 축제명칭을 보성다향제에서 보성다향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차문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시기: 5월 T. 061-850-5211~4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땅이 만드는 먹거리 사람이 만드는 추억거리



광양-애호박

겨울철 일조량이 많고 깨끗한 물, 비옥한 토질에서 생산되는 광양 애호박은 최고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소화기 계통을 보호하고 치매 예방, 두뇌 개발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여수-갯김치

돌산갯은 한반도 남단의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알칼리성 토질의 여수 돌산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이다. 시큼하게 익혀 먹는 갯김치는 눈을 밝게 해주고 기침을 그치게 하며,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순천-매실

전국 최대 매실 생산단지인 순천에는 약 25만평에 이르는 드넓은 들판을 매화나무가 가득 채우고 있다. 체질개선, 해독작용, 피로회복 등 효과가 좋아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보성-녹차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져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만나는 보성은 천혜의 차 재배지로 손꼽히며, 우리나라 녹차 생산량의 40%를 생산한다. 녹차 잎은 4월 중순에서 5월초에 따는 어린 잎을 으뜸으로 친다.



숙박 안내

광양

연경당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중흥로 13-40	061-763-2678	https://peepul.co.kr/	
보스톤모텔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청룡 길 6-8	061-792-8842		

여수

코모도모텔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문화길 69	061-655-0011		
두바이모텔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4길 55	061-652-5000		
베니키아 호텔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6길 19	061-662-0001	www.benikea.com/	

순천

순천만
해룡성고택 전라남도 순천시 흥두길 136 061-744-1760



순천만
민속한옥펜션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2길 33 061-741-6735 www.민속한옥펜션.com



보성

춘운서옥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11-9 010-8786-1114 cwihanok.modoo.at/



보성여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19 061-858-7528 www.boseonginn.org/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란?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사업 범위 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품질인증 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곳

*상기 속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베니키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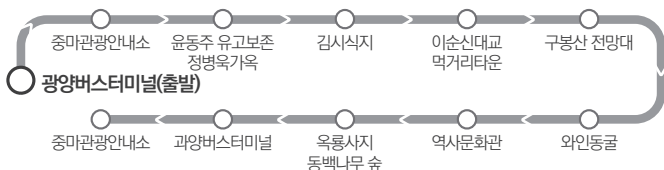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인브랜드 사업

*상기 속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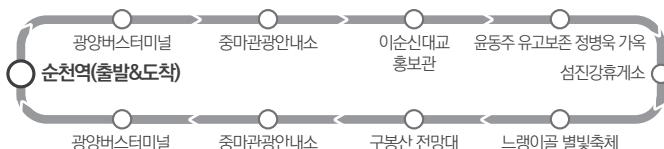
교통 안내

광양 시티투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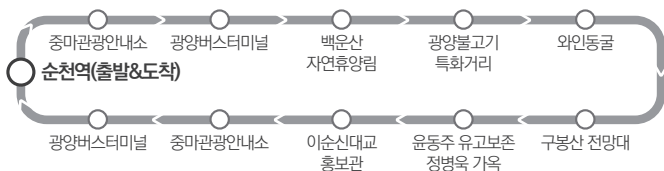
봄 코스 : 토·일요일
(2019년 4월~6월)



야경 코스 : 토·일요일
(2019년 7월~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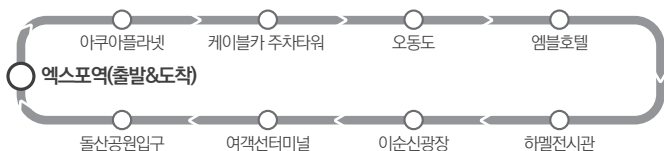


가을 코스 : 토·일요일
(2019년 9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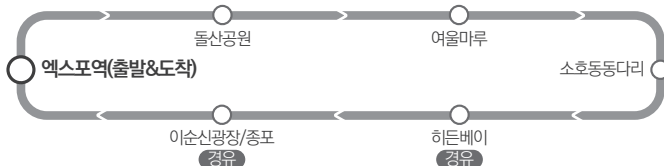


여수 시티투어버스

2층 투어버스
주간코스



2층 투어버스
야간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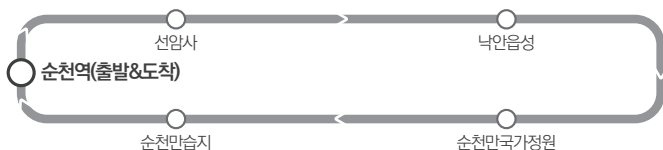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관광안내소 및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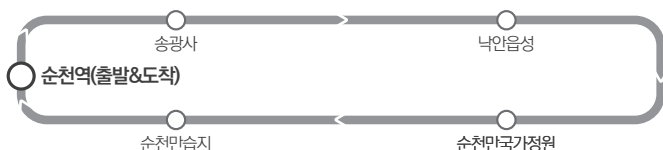
순천 시티투어버스 도심순환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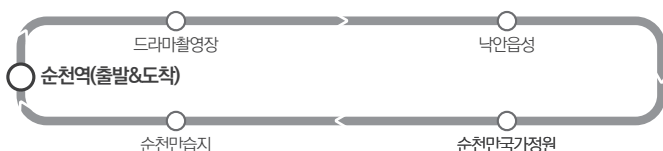
선암사코스



송광사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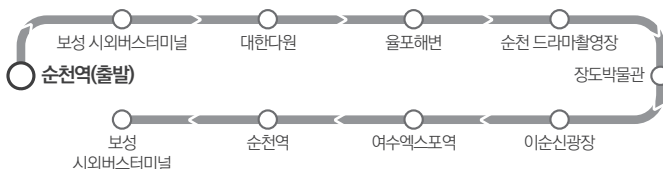


자연생태코스



※ 운행코스는 계절별, 축제 시기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성 시티투어버스 보성 광역시티투어



*진행 코스 및 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26464)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TEL.033-738-3000

남도바닷길을 걷고 오니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내가 원하던 길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혹여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도
길은 여정 중 하나이니, 다시 길을
찾으면 된다.